

# 순정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르 1, 10-11).

주의 세례 축일

제 1 독서 : 이사42, 1-4, 6-7  
제 2 독서 : 사도10, 34-38  
복음 : 마르 1, 7-11

## 강론

### “교회는 하느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명재 신부 / 오룡동 천주교회

1. “예수께서는 갈릴래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의 역사적 탄생 사건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즉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인간 속에서 사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의 세례’는 또 하나의 성탄(Incarnatio)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죄없으신 분이기에 세례가 필요없다. 그러나 그분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에게만 필요한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시고 계신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시는 세례의 행위는 인간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제2의 성탄인 것이다.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과 함께 하고자 세례로써 또 한번 자신을 낮추신 것이다.

2.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예수께서 말유유에 태어나신 날 밤, 주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인간이 되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런데 하느님은 예수께서 자신을 낮추어 죄인인 인간과 똑같이 되고자 세례를 받는 순간 또 한번 그분을 당신의 아들로 선포하고 확인시켜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당신을 낮추실 것이고, 하느님은 백인대장의 입을 통해 십자가의 예수님이 당신의 참아들임을 선언하실 것이다.

3. 80년대에 이 사회는 격동의 시간을 보내었다. 정치·경제·사회·통일 등 모든 것이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했던 이 사회에 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히려 교회는 사회의 불안을 감소시키기보다 더욱 비대해진 모습으로 발전했고 현실에 안주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의 성탄, 세례, 십자가 사건은 교회가 비대해지거나 현실에 안주하라는 사건이 아니다. 이 땅의 고난받고 가난한 민중과 함께 사는 사건이며, 현실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이를 하느님의 뜻에 맞게 극복하며 사는 사건이다.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 소리

### “우리 모두 한형제”

얼마 전 서울 어느 동네에서 천주교 사제와 개신교 목회자, 불교 승려 등이 서로 손을 잡고 불우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면서 각 종교간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

하느님을 경배하는 의식이나 용어상의 차이가 있을 뿐 천주교와 개신교는 근본이 같은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불교라고 해서 또 얼마나 다를 것인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가 한점의 시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하느님의 창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형제가 아니겠는가.

보다 엄숙하고 꾸밈없는 천주교의 전례와 분위기에 익숙해 있는 교우들은 다소 어수선했다고 가식이 있어 보이는 개신교의 전례와 분위기에 위화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더러는 개신교 일부 교파의 집단 이기주의적 교회운영과 독단에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끼리끼리 모이면 개신교 쪽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비판적 견해를 나누고 천주교의 장점만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 터를 바꾸어 보면 적 종교인 가톨릭 교회에는 개신교 쪽에서 비판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인가. 아마 개신교 쪽에서도 할 말이 없지 않을터이나 다만 우리들의 귀에 전해지지 않을 뿐이 아니겠는가.

특별히 이 나라에는 크리스찬들이 손을 맞잡고 해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 제일 큰 일은 통일사업이다. 교회가 서로 일치하거나 일치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하리라 생각해본다. **☐**

### 순정이 산책



예수님의 시범

## ‘매년 1월 18일~25일’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

“거룩하신 아버지,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주십시오”(요한 17,11)라는 유언을 남기고 주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너무도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온갖 이유로 이 ‘갈라짐’을 합리화하고 있으나 사실 어떤 이유로도 아름답게 볼 수는 없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네들만이 진리를 갖고 있고 자기네 조직과 제도 안에서만 예수님의 구원 행위가 가능하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세계 곳곳의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교의 재일치를 위한 운동(에큐메니칼)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베드로 주교좌 축일인 1월 18일부터 사도 바오로 개종 축일인 1월 25일까지를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 기도하자고 맨 처음 주장한 사람은 영국 성공회의 사제(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로 개종함)이며 속죄회의 창설자인 폴 와트슨(Paul Wattson) 신부였습니다. 그후 개신교의 ‘신앙 직제 운동’, 프랑스 리옹의 폴 꾸뛰리 신부 등에 의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되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현재와 같은 모습의 ‘그리스도교 일치 주간’이 정해졌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 교회 협의회와 로마 가톨릭의 그리스도교 일치 촉진 사무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일치’하면 우리는 쉽게 갈라져 나간 개신교가 다시 로마 가톨릭이라는 제도와 조직 안으로 재흡수되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의미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닙니다. 조직과 제도의 일치에 얽매이기보다는 각자 자신들이 갖고 또 자량으로 여기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이 땅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협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일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의 교파와 관계없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시 뭉쳐 인류의 공동 적과 싸워야 할 시기입니다. 자칫 온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지도 모르는 공해, 핵, 풍요와 함께 만연된 비도덕적 사고와 행위들, 날로 땅에 떨어지고 있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 등 비복음적이고 비자연적인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을 내다보는 이 시기! 하느님의 자녀로 지칭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함께 뭉쳐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일해야겠습니다.

## “선택된 젊은이들의 신학대학”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학 입시! 자신의 희망과 적성과는 관계없이 일단 합격하고 보자는 눈치 작전에 하향 지원이 극심했던 91년도 전기 대학 입시! 모든 대학이 지원자들로 넘치는데 유독 광주, 수원, 대구 가톨릭 대학은 정원 미달이라는 소식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교회 안팎으로 형편없는(?) 신학대학으로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여 신학대학은 원서만 접수하면 모두가 합격되는 삼류, 사류 대학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교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구는 작년 9월 성소국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사제직을 지망하는 지원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참다운 사제 지원자를 발굴하여 양성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지원자들에 대한 개인 면담, 인성·적성검사, 고교 성적, 신체검사, 가정방문, 본당신부님과 면담을 통해 지원자의 자격과 원의를 여러 차례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본당신부님과 주교님의 추천서를 받은 사람만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눈으로가 아닌 하느님의 눈으로 각 지원자들을 심사하기 위해 주교님과 신부님들이 기도하면서 심사에 임했으며 사제들의 숫자가 부족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상당수의 지원자를 추천 과정에서 탈락시켜야만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광주 가톨릭 대학의 경우 고교 졸업 지망자 62명 중 48명 합격, 대학 졸업 학사 편입 지망자 6명 중 4명 합격이라는 사실입니다. 미달된 상태에서도 16명을 다시 탈락시킨 것입니다. 결국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은 질적인 면에서의 참다운 사제 양성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에 ‘선택해야 하는’ 아픔을 항상 겪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달된 신학대학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신학대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으로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선택된 젊은이들의 신학대학’이라는 의미로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입시에서 우리 교구는 17명이 지원하여 15명이 합격하였으며 수석의 영광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까지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주 가톨릭 대학 합격자 명단 : 송호석(조촌) 김창현(장계) 황의현(용머리) 전우진(월명동) 조창배(팔마) 한택중(송천동) 강병욱(서신동) 백승운(효자동) 김성현(노송동) 이영춘(평화동) 서용석(창인동) 김대영(대야) 정유진(용안) 박성수(용안) 정치영(용안)

### 교사 초빙

1. 과 목: 국어, 수학
2. 구비서류: ①이력서  
②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③대학교 진학년 성적 증명서  
④교원자격증 ⑤호적등본
3. 접수기간: '91. 1. 18 17:00
4. 면접일자: '91. 1. 21 09:30
5. 서류제출처: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사무과
6. 근무예정지: 전주 성심여자중·고교

### 강좌 안내 성공적인 삶의 비결

1월 17일(목) 오후 2시 및 7시  
전주 가톨릭센터 대강당  
연사: 金重培 (말시아노) 博士  
참가비: 1,000원  
신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대입 종합반

개강 1월 15일  
서울대반 50명  
일반대반 70명  
국·영·수 집중강좌

### 동편공예수강생모집

수시 접수  
직장인 환영  
안골 주택은행 앞 언덕다방 3층  
☎ 88-5044  
이 미 숙 (테레사)

잡 간!

“예쁜 본명?”

오늘은 주의 세례 축일이다. 예수님의 세례명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선 어떤 이름을 고르실까? 어이없는 생각을 한번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만큼이나 어이없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한두 번쯤은 꼭 겪는 일인데 “신부님, 예쁜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라는 부탁을 받는 것이다. “글쎄, 어떤 이름이 이쁠까?” “왜 있잖아요. 세실리아, 주리아, 안젤라...그런거요.” 참 어이가 없다. 교리를 배워도 한참 헛 배웠구나 하는 생각에 매우 쓸쓸해진다. 우리가 세례 때 새로운 이름을 받는 것은 지금의 한국식 이름이 미워 외국식의 멋드러진 이름으로 바꾸기 위함이지 않나!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던 묶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새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기 위한 세례명이다. 그래서 이미 나보다 먼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충실히 살다가 이제 천국의 영광중에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성인’들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분처럼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의 전구를 구하기 위함이다. 즉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나의 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다가 가신 분인지도 모른 채 어찌 그의 이름을 딸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 난 내 세례명으로 선정한 성인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해본다.

교 구 소 식

- ※ 사제서품식 : 1월22일(화) 10시30분 중앙 성당.
  - 1. 본당 사무장·사무원 피정 : 1월15일~16일 천호 피정의 집.
  - 2. 재무 평의회 : 1월18일(금) 오후2시 교구청.
  - 3. 전주 제6차 선택 : 1월25일~27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미혼 젊은이 회비-25,000원 접수·문의-교육국(85-0041).
  - 4. 전북일보 천주교 고점관(7면) ‘성당의 증소리’ 안내 : 14일(월)-대통령 신부(정인섭 선생), 16일(수)-산 교육의 체계(최용준 신부), 19일(토)-그리스도교 일치(홍보국)
  - 5. 원고 모집 : 주제-미사예물, 원고 5매 이내 1월21일까지 홍보국 (85-0041).
  - 6. 제32차 M. E. 주말 교육(30쌍) : 18일~20일 천호 피정의 집.
  - 7. M. E. 소개모임 : 19일(토) 15시 가톨릭센터 M. E. 사무실.
  - 8.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 교구 이사회 : 19일 오후2시 사회복지회 회의실.
  - 9. 교구사목방침에 의한 생명공동체운동 특별교육 : 1차-1월20일 10시30분 효자우전 성당 강사-김승오 신부(전국가톨릭농민회 지도신부), 2차-1월27일 10시30분 효자우전 성당 강사-이순노 자매 주최-전주교구 농민사목위원회.
  - 10.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대상-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미혼자 15일 10시30분 가톨릭센터 별관4층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 ※ 축! 영명 : 17일(성안토니오) 김진룡, 최용준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전교가르멜수녀회 : 1월20일 13시30분 서신동 성당 수녀원 74-9262, 파티마성모 수녀회 : 1월19일(토) 17시~20일 18시 본원 (0331)8-5883, 천주의 성모한수도회 : 1월20일 14시 본원 (062)54-0041, 성모성심수도회 : 1월19일(토) 12시~20일 16시 본원(0334)74-1251, 샬트르 성바오로수녀회 : 1월 20일 14시 숲정성이성당 수녀원 252-9567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연말연시. 서로의 인사 가운데 무리한 선물, 향응 및 뇌물 등을 일체하지 맙시다. 서로를 위한 기도, 미사 등 훨씬 훌륭하고 귀한 선물을 주고받는 연말연시가 됩시다.

요심이 (910) 김병오



관다예 미술 학원

91년도 원아 모집  
국교부 수강생 모집  
원장 박경화 (마리아)  
방문. 진화 상담 환영  
효자동 ☎ 223-8355

양재·한복·흠패션  
노라노 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인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사앞  
☎ 86-2715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 (유리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본과·연구과·피부미용과  
이리시 중앙동3가 7-1  
☎ 3-2496, 2-8653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수녀화 } 총판매장(공정직영)  
이동화·특수화 }  
김문식(베드로)  
☎ 82-3118  
풍남문, 존크, 송약국 사거리

김치일체, 밑반찬, 젓갈류  
(주문환영)  
**성가반찬**  
박명선(엘리사벳)  
염규철(요셉)  
중앙성당 옆 시장 입구  
☎ 253-6429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산부인과전문의 황수경(크리스티나)  
이승렬(엘리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 노송동

1. 남전주 초등부 졸업피정: 14일(전동성당에서 후2시 출발)~15일, 장소-명덕 적십자 수련원, 피비-5,000원.
  2. 전주M.E 32차주말강습: 18~20일 이상현부부, 노판석부부.
  3. 성가대 총회: 15일 어머니미사 후, 교리실 세대원 모집함.
  4. 사무장·사무원 피정: 15~16일 영육간의 건강을 받는다.
  5. 모임: 자모회-오늘 공식미사 후 · 꾸리아-오늘 후2시 · 부녀회 월례회-15일 어머니미사 후 · 형제회-19일 후2시.
  6. 반회장 객질: 남노6-김재숙, 중노1가6-정경숙, 중노1가10-문병희, 동진3-이순인, 중노2가11-김영숙, 중노2가12-전점순, 인후9(17)-이순재, 인후13-문선순.
- ☐ 지난주 봉헌금: 744,620원 ☐ 교무금: 845,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1. 미사시간 변경: 14일(월)부터 새벽미사 6:30.
  2. 요새회: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오후2시.
  4. 청년회: 저녁미사 후, 5. 사무장·사무원 피정: 15일~16일 전호, 6. 부녀회 정기총회: 17일 오전10시.
  7. 구역분과회: 19일 오전10시.
  8. 성우회: 공식미사 후, 신입회장-박상기씨 수고하시겠습니다. 이갑진씨 수고하셨습니다. "축" 결혼: 20일 12시 신랑-함명승(스테파노), 신부-안숙(세시리아) 성당청소: 1월19일-평화의 모후Pr, 능하신 성녀Pr, 1월26일 황금궁전Pr, 성모성녀Pr.
- 금주 전례: 해설-임윤희 독서-봉헌-차주 전례: 해설-김영수 독서-봉헌-육태수 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572,110원 ☐ 교무금: 532,900원  
☐ 미수교무금: 338,4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1. 오늘은 주의 세례 축일입니다. 2. 축 꾸르실로 수료: 남성37차-최상훈 사무장.
  3.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사무장 피정: 15일~16일 전호, 5. 제대꽃 봉헌: 소세실리아 1구차.
  6. 금주 전례: 해설-김경재 독서① 이육동 ② 김금자 봉헌-양재철, 양귀환 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이승복 독서① 여정진 ② 최명숙 봉헌-이기봉, 이준희 씨 부부.
  7. 성가정회: 17(목) 10:30 미사후, 8. 성가정 재창립 모임: 20(일) 공식미사 후.
  9. 구역 형제회: 장소-성당 16일-제6구역 봉사자-김봉길, 강문옥, 김중석, 17일-제5구역 봉사자-유순천, 박귀철, 강덕용, 18일-제4구역 봉사자-이육동, 김영신, 양주태.
- ☐ 지난주 봉헌금: 266,860원 ☐ 교무금: 281,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오늘은 주의 세례축일!
1. 회의: ① 반장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성심회-오늘 오후2시 ③ 프란치스코3회-오늘 오후2시.
  2. 모임: ① 전례부-오늘 저녁미사 후 ② 울뜨레아-1월16일(수) 저녁미사 후.
  3. 알림: ① 예비자 교리-1월20일(일)부터 성모승천 영세반 교리 시작합니다. 많은 인도 바랍니다. ② 교무금 미신입자는 사무실에 신입바랍니다. ③ 꾸리아 단장-이주철(야교보) 형제님, 수고하시겠습니다. ④ 봉성제-1월16일(수).
- ☐ 지난주 봉헌금: 589,700원 ☐ 교무금: 420,000원

\*용머리 사제관 84-8123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예비자를 인도합니다(2월1일부터 시작).
1. 초·중등부 교리교사모집: 본당내 대학생 및 청년층으로 어린 이를 사랑하고자 하는 분.
  2. 6학년 졸업피정: 14일~15일(1박2일)-명덕 적십자 수련원.
  3. 사무장 피정: 15일~16일 전호피정의 집, 기도 부탁.
  4. 중·고등 학생 겨울피정: 1월30일~31일(1박2일) 광주 젊음의 집.
  5. 수의 판매: 본당 애령분(문의: 전 골롬반(T·84-0481)).
  6. '91년도 교무금 미신입세대는 신일요양.
  7. 신자봉사: 서완산동 1가 서편.
  8. 청소년봉사: 서완산동 1가 서편.
- ☐ 지난주 봉헌금: 407,810원 ☐ 교무금: 541,000원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종송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득수

## \*전동

- \*성전 보수현금 바람. 1. 자모회: 오늘 오전10시.  
2. 사목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구역장(반장)회의: 17일(목) 오전11시.  
4. 레지아: 다음주 오후2시.  
5. 청년 연합회 정기총회: 다음주 저녁미사 후(소강당에서).  
6. 성모회 모임변경: 매월 네째주 수요일(23일) 12시.  
7. 91년도 교무금 미신입세대 빠른 시일내 신입바랍니다.  
1) 91년도 교무금 예산액: 116,900,000원, 2) 현재 신입총액: 95,064,000원, 3) 현재신입세대: 708세대.  
\* 금주보수비현금액: 1,796,000원 \* 현재도금총액: 183,012,704원  
\* 금주보수비신입액: 880,000원 \* 현재신입총액: 242,419,618원  
☐ 지난주 봉헌금: 1,441,09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박병준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환

- \*교적정리: 이사는 신자(구역변경)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고 가족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성전신축을 위하여 매주일 미사시 2차현금이 실시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구역장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15일(화) 오전10시30분, 3. 성심회: 16일(수) 오후2시, 4.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권수녀님, 구수녀님 피정: 13일~22일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6. 성체조배: 매주 월요일 있음. 7. 금주 전례: 문치구 복사-서영상, 박병환 봉헌-강상근 부부, 차주 전례: 강상근 복사-심상기, 오수환 봉헌-박해근 부부.
- ☐ 91년도 교무금 신입과 성전신축 2차 신입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84,800원 ☐ 교무금: 446,550원  
☐ 신축현금: 1,130,000원 ☐ 신축 2차현금: 193,160원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중교 학생회 정기총회: 19일(토) 오후6시-부모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3. 교무금 신입에 협조있으시기를 형제자매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금주 전례: 한병갑 독서·봉헌-최정순·정병열 차주 전례: 최정순 독서·봉헌-허정애·이봉수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 \*효자동

1. 울뜨레아 정기총회: 오늘 저녁7:30(꾸르실로수료자 환영식 결합).
  2. 성구회: 오늘 오후2시(교대 테니스코트).
  3. 모니카회·데레사회-수요일 10:30.
  4. 90년도 교무금을 완납하시고 91년 교무금을 신입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1,040,240원 ☐ 교무금: 615,000원  
☐ 2차현금: 200,000원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 \*성명운동강의: 다음주 공식미사-김승오 신부님.
1. 울뜨레아: 공식미사 후.
  2. 은혜의 밥: 18(금) 22:00~04:30, 강사-안마리아 씨.
  3. 두원리 공소미사: 18(금) 19:30.
  4. 가정방문: 15(화)~17(목) 한신코아.
  5. 꾸르실로수료자 탄설: 송하영(대건안드레아), 임한영(바오로). 차주 모임: 사목회, 새벽회, 신축현금 총신입액: 65,650,000원 지난주 봉헌액: 1,045,000원
- 금주 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 최재준 ② 김동희 기도-송대식, 윤길영 차주 전례: 해설-박병래 독서① 김영근 ② 김현자 기도-강진상, 정병순
- ☐ 지난주 봉헌금: 834,150원 ☐ 교무금: 1,602,000원